

## 통일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인문학적 ‘소통’에 관한 연구

이승규(수원 인계초등학교)

---

### ◀◀ 요약 ▶▶

---

통일은 한반도 민족에게 있어 당위적인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의 충분한 소통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기는 어렵다. 설령 여러 외부 요인들에 의해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소통의 자세를 갖추고 있지 않다면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소통은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하기 위해, 또 통일 이후에 생길 여러 문제들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방식으로는 남북한 소통의 실질적인 진보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사람 대 사람의 인문학적 소통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인문학적 소통의 의미와 방법을 살펴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남북한의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는 남북한 소통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궁극적으로 남북한 통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소통, 차이, 동일화의 욕구, 타자, 민족애

---

### I. 서론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가 시작된 이후 남북한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악화되고 있는 관계는 ‘통일’이라는 우리의 민족적 과제를 더욱 어려운 문제로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혹자는 김정은 체제가 그 자체가 가진 불안정성 때문에 몇 년 내에 금방 붕괴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는 오히려 통일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주장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러한 통일

(북한체제의 스스로 무너짐에 따른 흡수통일)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왔던 평화통일과는 거리가 있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 겪게 될 많은 문제점들도 훨씬 더 많이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북한체제의 붕괴로 인한 통일은 남한체제가 북한체제보다 우위에 있다는 생각을 심어 주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남한체제가 북한체제보다 현대 사회에 적응하여 살아남기에 더 적합하므로 통일된 민족의 변형을 보다 더 잘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서 혹은 사회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혹은 금기시 되더라도 그것은 이상적이거나 실제로 지켜지기 힘든 ‘교과서 적인’ 금기일 뿐이다. 은연중에 남한 사람들에게는 북한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북한 사람들에게는 남한사람들이 자신보다 우위에 있다는 열등감을 불러일으킬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만함과 열등감은 통일된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세계 여러 국가가 보이고 있는 다문화 사회의 문제점을 통일한국만의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내게 할 것이다. 단순히 남과 북 중에서 한 체제가 붕괴되고 다른 한 체제가 살아남음으로써 이루어지는 통일은 가장 현실적이고 쉬우며 빠른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현재의 안락함을 위해 미래의 고통을 모른척하고 대비하지 않는 무책임한 통일일 뿐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토록 바라왔던 평화통일은 통일의 당위성을 지키는 것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들을 추구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통일 후에 발생할 여러 갈등들을 예방하고 남과 북의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적극적인 통일 방법인 것이다.

그렇다면 평화통일을 위해서 남과 북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대답은 분명히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의 대답들 모두 경우에 따라서 평화통일의 충분조건이나 필요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 중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평화통일의 전제조건으로서 갖춰져야 할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분단은 비극적인 동족상잔의 역사 속에서 하나의 국가가, 하나의 민족이 둘로 분열 된 거대한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개체 둘이 가지고 있는 갈등이든, 거대한 두 집단이 가지고 있는 갈등이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 소통 없이 해결하는 갈등은 힘의 우위에 인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갈등해결이거나 일시적으로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불안정한 해결방법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해결방법들이 위에 언급했듯이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고, 그것이 다시 둘의 관계를 위협하게 될 것임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갈등의 주체들이 각자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거대한 집단인 국가들이며, 갈등 해결의 궁극적인 목적이 통일인 경우에 두 번째 방법인 불안정한 갈등해결 방법은 애초에 성립하기 힘들다. 따라서 진정한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소통이다. 물론 소통만으로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다. 더욱이 그 갈등이라는 것이 같은 민족에서 나누어진 두 국가 간의 분단이라면 그 안에 내포된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갈등의 주체들이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확인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겸하면서 갈등 해결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처럼, 남한과 북한이 진정한 소통을 통해 서로가 가진 욕구를 알고 이해하게 된다면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도 지금과는 다르게 긍정적이며 창의적으로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미처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북한체제의 붕괴로 인한 흡수통일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일찍이 남북의 소통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흡수통일 후에 생길 여러 문제들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혹여 발생하는 문제들도 익숙한 '소통'의 방식을 통해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통일의 전제조건인 소통의 인문학적인 의미를 탐색하고 그에 대한 직접적인 여러 방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적인 소통에 대한 방법들이 남과 북의 분단 극복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둘의 통합, 궁극적으로는 통일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 II. 소통의 인문학적 의미와 방법

### 1. 인문학적 관점에서의 소통의 의미

일반적으로 소통이란 의사소통을 나타내는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의사소통이란 구어나 문어 등의 언어적 요소는 물론 표정과 손짓 음색, 억양 등의 비언어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상대방과 생각이나 감정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소통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소통을 대화와 같은 것으로 그 의미를 한정하여 다루도록 한다. 그렇다면 대화가 일어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자. 대화는 하나의 주체만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은 항상 다른 주체 둘이 존재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흔히 자기 성찰의 의미로 쓰이는 '내 안의 나와의 대화'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다. 대화의 상대가 비록 나 자신이라고 할지라도 이때의 나는 내가 평소에도 알고 지내던 나 자신이 아닌 낯선 '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통의 상황은 항상 다른 두 개의 주체를 전제할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

소통의 의미는 한자로 풀이했을 때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트일 소(疏)'와 '통할 통(通)'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소통은 국어사전에서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으로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김성민 외, 2015: 94). 그리고 막히지 않고 잘 통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다. 첫째, 처음부터 막힘이 없는 경우이다. 이때에는 서로 다른 주체들이 소통을 함에 있어서 벽을 느끼지 않고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서로 잘 통하게 될 것이다. 둘째, 둘 사이에 막힘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둘 사이에 통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소통을 위해 어떤 인위적인 노력을 해야만 한다. 위에서 말했듯이 소통은 서로 다른 두 주체를 전제한다. 다름은 서로를 이해하기 힘들게 만드는 차이가 되고 차이는 결국 둘 사이의 큰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많은 상황 속에서 소통은 첫 번째의 경우보다 두 번째의 경우로 진행된다. 따라서 소통의 두 번째 전제는 둘 사이에 막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의 대화 상황을 예로 들었을 때 찾아볼 수 있다. 첫 번째 대화 상황은 상대방과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이다. 이 상황에서 날씨는 정해져있는 사실이며 대화의 주체들은 날씨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욕구를 가지거나 설득을 시킬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날씨에 관해서 대화할 때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화의 두 주체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다. 두 번째 대화 상황은 상대방과 식사 메뉴를 정하는 경우이다. 이 상황에서 대화의 주체들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거나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식사메뉴가 통일 되는 경우는 막힘이 없는 소통의 상황으로 욕구를 드러낼 필요가 없지만 이는 드문 상황이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소한 차이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따라서 상대방을 설득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음식 메뉴를 정하는 작은 경우에서조차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게 되면 언제나 갈등이 발생할 위험은 존재하게 된다.

위의 두 상황 모두 일상적인 대화 상황이다. 날씨를 묻거나 식사 메뉴를 정하는 것이 무거운 이야기 주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누구나 쉽게 겪어 왔던 상황이며 앞으로도 수없이 겪을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갈등 발생의 가능성은 식사 메뉴를 정하는 경우가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소통에 다다를 수 없는 이유는 이야기의 경중에 있는 것이 아니다. 대화의 주제가 가볍지 않고 무겁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욕구를 드러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갈등이 발생하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 욕구는 상대방과 나를 동일하게 만들고 싶은 욕구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이끌기 위해 대화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나와 다른 상대방을 나와 동일하게 만들려는, 어쩌면 불가능한 일을 노력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소통은 언제나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이다.

처음부터 막힘이 없는 소통의 상황은 서로에 대해 자신과 동일하게 만들려는 욕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굉장히 드물며 어떤 인위적인 노력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인문학적 관점에서 논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원활한 소통을 인문학적으로 논하는 것은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인위적인 노력 자체를 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통은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원활하지 못한 소통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소통의 막힘은 상대방을 설득하려 하는 동일화의 욕구에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소통'에서 필요한 또 다른 전제는 두 주체가 가지고 있는 욕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욕구는 소통의 두 주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소통의 전제 중 가장 처음에 언급된 '서로 다른 두 주체'와 합하여 의미를 구체화할 수 있다. 따라서 소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욕구를 가진 서로 다른 두 주체'를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소통에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하나는 두 주체 사이의 특수한 관계 맺음이다. 소통의 주체들이 모든 상대방과 같은 관계를 맺고 대화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내가 연인이나 친구, 부모님과 대화할 때, 혹은 다른 누군가와 대화할 때 각각 모두 다른 관계맺음 속에서 대화를 이어가게 된다. 그 이유는 소통의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는 욕구도 다르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도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통을 잘 이뤄내기 위해서는 소통의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관계맺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계맺음 또한 소통의 전제 중 하나인 서로 다른 두 주체에 포함 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소통은 두 가지의 전제를 가진다. 첫째, 욕구를 가지고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서로 다른 두 주체이며 둘째, 이 두 주체사이에 존재하는 막힘이다. 물론 이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소통의 상황도 존재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언급했듯이 인문학적 관점에서 논할 필요가 있는 소통은 위의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있는 소통이다. 그리고 이 두 전제조건에서 원활한 소통에 닿을 수 있는 열쇠를 찾을 수 있다. 소통의 주체들은 욕구와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특수한 관계를 이해하면서 각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차이를 억압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존중할 때 막힘이 풀리고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어질 내용에서 인문학적으로 소통을 어떻게 이뤄내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남북한의 특수한 관계맺음의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하겠다.

## 2. 소통의 인문학적 방법

‘자기 안의 타자와의 대화’- 해석학적 순환론에 의한 소통

앞서 살펴보았듯이 소통한다는 것은 동일화의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나와 특수한 관계를 맺는

다른 주체를 전제하고 있다. 소통의 대상이 되는 나와 다른 주체는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외부적 환경 조건에 의해 필연적으로 나와 차이를 가지게 된다. 소통의 주체들은 이 차이를 자신이 가진 동일화의 욕구에 의해 설득하려하기 때문에 소통에 있어서 장애를 겪게 된다. 따라서 진정한 소통은 두 주체들이 상대방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차이를 인정하고 궁극적으로 진정한 소통에 다다를 수 있는가? 우리는 그 해답을 ‘내 안의 타자와의 대화’- 해석학적 순환론에서 찾을 수 있다. 위에 제시한 소통의 방법은 ‘하나와 둘의 변증법’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나와 둘의 변증법’은 소통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적용되어 소통의 두 주체가 가지고 있는 동일화의 욕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두 주체가 가지고 있는 차이 역시 보존하려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통의 두 주체는 동일화의 욕구를 소통의 시작점으로 삼으며, 동일화 되는 것을 종착점으로 여긴다. 하지만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주체가 만들어가는 소통의 과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이란 소통의 두 주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 여전히 ‘둘’이라는 사실을 각자에게 강제하면서 서로 다른 두 주체의 다름을 함께 나누고 점진적으로 공통 경험과 공통적인 산출물을 만들어가는 것을 말한다(김성민 외, 2015: 131).

얼핏 생각하기에 두 주체가 하나가 되고자 하는 동일화의 욕구와 그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차이를 동시에 인정하는 것은 모순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둘 중 하나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소통을 전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소통은 동일화의 욕구를 종착점으로 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소통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각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차이를 배제하는 것은 어느 한 쪽, 혹은 양쪽 모두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거나 지나친 억압이 될 수 있으므로 막힘을 뚫고 서로 통하게 된다는 진정한 의미의 소통에서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와 둘의 변증법’적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둘이 하나가 되는 동일화의 결과를 얻으려면 일정 부분 자신의 입장 차이를 양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소통의 시작부터 차이를 배제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두 주체가 가지고 있는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차이를 줄여가는 것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애초에 차이를 배제하고 시작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상정해 놓고 시작하는 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두 주체가 가진 동일화의 욕구와 차이를 동시에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와 둘의 변증법’으로부터 발전되어 ‘내 안의 타자와의 대화’- 해석학적 순환론의 구체적 소통 방법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내 안의 타자와의 대화’ - 해석학적 순환론(이하 순환론적 소통)은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와 어느 정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순환론적 소통’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를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이해를 도울 수 있다.

‘타자 윤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타자에 대한 나의 책임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타자의 요청에 의해 타자를 나로 대체하는 것으로 져야 하는 책임이다. 이는 타자를 나와 동일한 동일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동일자를 타자에게로 가게 만드는 것이다. “타자성과의 관계, 즉 타자를 위한 동일자의 의미는 접근이며, 이 접근은 타자에 대한 책임을 가져오며, 이 책임은 타자를 대체하는 것이다(변순용, 2004: 14~15).” 이를 소통의 측면에서 다시 얘기해보면 타자를 나와 동일한 동일자로 만드는 것은 동일화의 욕구를 발현하여 상대방을 나와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동일자를 타자에게 가도록 하여 타자를 나로 대체하는 것은 타자의 맥락 속에서 타자를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순환론적 소통’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타자의 맥락에서 타자를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일반적인 역지사지의 관점과는 또 다르다.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타자를 이해하는 것은 타자의 맥락을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고려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낮은 수준의 타자이해에 그치게 된다. 반면에 온전히 타자의 맥락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가치관, 내·외부적 환경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순수하게 타자 그 자체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간단한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와 의견 차이를 가지고 원활한 소통을 이루지 못하는 B가 있다고 하자. A가 B의 의견을 이해하기 위해 역지사지의 관점을 취하는 것은 단순히 소통의 장애가 발생한 현 상황 속에서 B가 가진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에 불과하다. ‘내가 저 상황 속의 B라면 어떠했을까?’라는 A의 생각은 B가 겪고 있는 일시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낮은 단계의 맥락사유일 뿐이다. 게다가 사유의 중심에 여전히 ‘나’라는 A자신을 놓음으로써 완전히 타자의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반면 ‘순환론적 소통’에서 B를 고려하는 것은 A가 온전한 B가 되려고 노력하면서 B의 삶 속에 오랜 시간 동안 녹아있는 경험, 내·외부적 환경 조건 등을 직접 느끼는 것을 말한다. 그럼으로써 최종적으로 ‘B라면 어떠했을까?’를 사유하게 되고 진정한 B의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순환론적 소통’은 타자의 맥락에서 타자를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타자의 관점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면 그 관점으로부터 다시 본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관점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에 이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적 성찰이 다시 내가 가진 관점을 맥락 속에서 이해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소통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순환론적 소통’은 타자에 대한 맥락적인 이해를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로,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다시 맥락적인 이해로 바꾸는 소통을 말하는 것이다(송두울, 2002: 166).

역지사지의 관점도 낮은 단계에서나마 상대방의 맥락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소통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순환론적 소통’은 타자를 온전히 이해하고 동시에 나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게 하는 데에 의의를 가지고 있다. 타자와 나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서로가 가진 차이를 좁혀가고 진정한 소통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 Ⅲ. 통일을 위한 인문학적 소통

#### 1. 남북한의 특수한 관계맺음

남한과 북한은 각각 거대한 국가집단인 동시에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소통은 단순한 두 개체의 소통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국가는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오랜 역사적 경험, 대내·외적 환경조건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복잡성에서의 차이만 빼고 본다면 국가 간의 소통도 서로 다른 두 주체(동일화의 욕구를 가지고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는)이며 동시에 두 주체 간에 막힘이 존재하는 전제를 가지는 것에서 단순한 두 개체의 소통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인문학적 소통의 방법을 남북한 소통 문제에 적용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주지하였듯이 남한과 북한의 소통은 이미 두 전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생각해볼아야 할 것은 소통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다른 하나인 두 주체의 특수한 관계 맺음이다. 2장에서 하나의 동일한 주체라 하더라도 어떤 주체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소통의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의 소통에서 둘의 특수한 관계 맺음에 주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남한과 북한은 먼저 국가 대 국가라는 기본적인 관계 맺음을 가지고 있다. 이는 남한과 북한이 주변 다른 국가들과 맺고 있는 단순한 외교적 관계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은 본래 하나의 국가에서 분단된 두 개의 국가라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과 맺는 관계와는 다른 특수한 관계를 서로 맺고 있다. 즉, 국가 대 국가로 관계를 맺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여타 국가들과 맺는 관계보다 동일화의 욕구가 강렬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남한과 북한이 다른 국가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또한 소통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때에도 동일화의 욕구는 쌍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는 욕구의 질과 양에서 그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남북전쟁 등의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어왔음에도 남한과 북한은 기본적으로 '사랑'이라는 민족애로 연결되어있는 집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이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동일화의 욕구는,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그것과는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상의 관계맺음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어떤 주체가 가족이나 연인과 관계를 맺을 때와, 서로의 편의를 위해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발생하는 동일화의 욕구는 다르다. 기본적으로 두 경우 모두 동일화의 욕구를 가지는 것은 같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관계 속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존재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관계 속에 합리성이 작용할 뿐이다. 그리고 당연히 사랑이라는 감정이 개입한 동일화의 욕구는 다른 것에 비해 그 크기가 크며 질적인 면에서도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

2장에서 밝혔듯이 동일화의 욕구는 소통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하지만 그것이 충분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작용하면 소통의 두 주체가 가진 차이를 억압하고 배제하게 됨으로써 소통의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즉, 사랑의 감정이 개입된 관계는 합리성을 추구하는 관계맺음에 비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족이나 연인 등의 사랑하는 사람과, 별 감정이 없는 타인이 나에게 같은 행동을 했을 때 가족과 연인에게 더 쉽게 상처를 입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소통은 이러한 사랑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뤄질 수 있다. 소통의 장애를 더욱 빈번하게 일으키는 '사랑'이 어떻게 진정한 소통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까. 다시 일상의 예로 돌아가 보도록 하자. 사랑의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동일화의 욕구가 작다는 것을 다시 해석해보면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이 그만큼 적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소통은 나와 타자의 완전한 이해에서 출발하여 막힘을 뚫고 원활히 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설령 일반적인 타자와의 관계에서 소통의 장애가 더 적게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완전한 이해에서 비롯된 소통이 아닌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소통일 뿐이다. 또한 소통의 종착점은 동일화이기 때문에 그 종착점으로 향하고자 하는 욕구, 즉 동일화의 욕구가 강하게 작용할수록 소통의 가능성이 넓게 열려있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들이 남북한의 특수한 관계에 시사하는 바는 크다. 남북한은 서로에게 민족애로 대별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이

국가 대 국가로서 여타 국가들과 관계 맺는 동일한 방식으로 소통을 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남북한은 서로에 대한 민족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통에서 더 많은 장애를 겪게 되며 그것은 얼핏 보기에 남북한의 소통을 다른 국가들과의 소통보다 더 어려운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시 이 민족애는 소통을 위한 구심점으로 작용하여 남북한 소통의 가능성을 더욱 크게 열어줄 것이며, 나아가 다른 국가들과의 소통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진정한 소통에 이르게 해줄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 2. 인문학적 소통 방법의 남북한 상황에의 적용

지금까지 인문학적 소통의 의미와 그 방법, 남북한의 특수한 관계맺음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남북한의 특수한 상황에 인문학적 소통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인문학적 소통방법인 ‘순환론적 소통’은 소통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화의 욕구와 차이를 모두 존중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내 안의 타자와의 대화’를 통해 끊임없이 타자와 나를 이해하고 둘이 가진 차이를 좁혀, 궁극적으로 동일화에 이르는 것을 핵심으로 삼는다. 이를 남북한 상황에 적용해서 생각해보면, 선행되어야 할 과정은 남한과 북한이 가지고 있는 동일화의 욕구와 서로가 가진 차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먼저 남한과 북한이 가지고 있는 서로에 대한 동일화의 욕구를 이해하는 것은 욕구의 원동력인 민족애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민족애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을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한과 북한이 가지고 있는 동일화의 욕구는 민족애라는 사랑의 감정 때문에 타 국가들에게 가지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따라서 민족애를 중요시 하는 것은 소통의 가능성을 넓히는 데에 있어서 중요하다. 하지만 지나친 민족애의 강조는 다음과 같은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첫째, 민족은 근대화된 사회에서 필요에 의해 창조해낸 허구적인 개념일 뿐이다. 둘째,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민족애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지나친 집중은 국제 정세와 맞지 않는 ‘동일성의 폭력’을 낳을 수 있다. 이러한 민족애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고찰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에 대한 재(再)비판이나 대안 성찰을 통해 민족애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 방향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민족이라는 개념이 설사 허구화된 개념이라고 할지라도 남한과 북한은 그 특수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저항적인 민족주의와 좌절당한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다. 즉, 허구

적인 민족 개념과는 별개로 실체를 가지고 있는, 저항적이며 좌절당한 민족정신이 남한과 북한 사람들에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한과 북한 주민들이 지니고 있는 민족정신은 동일화 욕구의 바탕이 되며 동일화의 과정에서 구심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나친 민족에 대한 집중이 낳을 수 있는 '동일성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통합을 중요시해야 한다. 다양한 문화권에 살고 있지만 한반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민족정신을 공유하고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와의 통합을 이뤄내면 동일성의 폭력에서 벗어나 민족 공통성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남북한이 가지고 있는 민족에는 민족정신에 바탕을 두고 발현하여 그 자체가 가진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민족애의 긍정적 역할을 사유함으로써 남한과 북한이 가진 동일화의 욕구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남북한이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탐색해 보도록 하겠다. 남북한이 가지고 있는 차이를 인정할 때, 가장 먼저 진행되어야 할 것은 남한과 북한을 각각의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를 하나의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두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큰 차이를 부정해버리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것은 '순환론적 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며 따라서 진정한 소통의 첫 걸음조차 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게 한다.

또한 서로를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독일 통일의 경우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독일 통일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브란트의 신동방정책은 서독의 입장에서 구 공산권의 사회주의 체제를 제거하여 흡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대신에 체제 대립의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동구권 사회에 서구 체제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여 변화를 유도하려는 기본 철학을 제시하였다(황병덕 외, 2000: 58). 그러나 신동방정책이 체제 대립 상태를 유지하였다고 해서 현상 유지를 영구히 하는 정책은 아니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현상을 바꿈으로써 극복하고자 하는 과정적이며 적극적인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황병덕 외, 2011: 50). 이것을 남북한의 상황에 대입해보면 남한과 북한이 각자의 국가, 체제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인 교류·협력과 같은 소통을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차이를 극복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인 통합을 이루어내는 것이 된다. 또한 신동방정책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것이 아닌, 잠정적으로 두 국가를 인정하고 통일을 지향한다는 과정적 의미로 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실제로 남한과 북한의 경우에서도 남북기본합의서, 남북 유엔동시가입 등을 통해 서로를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노력이 있었다. 즉, 남북한이 진정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기본합의서를 과거의 한 사건으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계속 이어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이 서로의 동일화 욕구인 민족애를 확인하고, 상대방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함으로써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순환론적 소통’의 필요조건 중 하나일 뿐 그 자체로 충분하지는 않다. 그것과 더불어 서로가 서로의 타자가 되어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아가 자신을 이해하는 ‘내 안의 타자와의 대화’ 과정이 요구된다. 한 민족에서 분단되었으며 같은 한반도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60년의 분단세월은 서로를 서로에게 이질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리기에 충분했다. 따라서 상대방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대·내외의 환경적 요인을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독일이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서독과 동독은 독일 문제를 그들 내부의 문제로만 다루지 않았다. 그것에 넘어서서 각 국가와 관련된 여러 국제 사회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통일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소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대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대외적 요인도 중요시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렇게 서로가 가진 제반 조건들을 이해하게 되면 비로소 나를 타자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소통의 체계 속에서 남한이 북한이 되고 북한이 남한이 되어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단계를 거침으로써 남한과 북한은 각자가 처음 가지고 있던 입장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게 되며, 나아가 처음 보다 명료하며 개관적으로 각자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순환론적 소통’을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면 서로의 입장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다. 남북한이 서로에 대한 입장을 명료하게 이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남북한은 실질적으로 서로에게 양보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실제적인 협상의 진보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순환론적 소통’은 서로를 이성적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지게 함으로써 서로에 대해 보다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게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러나 ‘순환론적 소통’이 처음의 원동력인 동일화의 욕구만으로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현재 남한에서는 분단을 직접 겪지 않은 세대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상황을 비정상이 아닌 정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속화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소통을 지속할 수 있는 또 다른 원동력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역할은 남북한 통합의 당위적 측면과 실리적 측면 모두를 고려하는 정책이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정책은 그것의 존재이유를 확인시켜주는 당위적 명분과 실질적인 이익이 공존할 때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남북한 이산가족 문제,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 문제 등의 당위적인 측면은 소통을 지속하는 명분을 제공해주고 서로의 문화 교류 및 경제협력 등은 실질적인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당위적·실리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정책은 일회적으로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적용될 때 실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통일의 전제조건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소통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인문학적으로 소통에 접근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였다. 따라서 소통의 인문학적 의미와 방법을 파악하고 그것을 남과 북한의 통일을 위해 적용해 봄으로써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문학적인 소통의 의미는 동일화의 욕구와 서로 다른 차이를 가지며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는 주체들이 막힘을 뚫고 진정성 있게 통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소통에 다다르기 위한 인문학적 방법으로 '자기 안의 타자와의 대화 - 해석학적 순환론'을 이끌어왔다. 그것의 핵심은 나의 타자화를 통해 타자를 이해하고 다시 타자의 관점으로 나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의 끊임없는 반복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를 좁히고 견해 차이를 줄여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음으로 소통의 주체를 남과 북으로 치환하여 인문학적 소통 방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았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남한과 북한이 서로의 욕구와 차이를 인정하기 위해 서로를 독립된 국가로 이해하는 것과, 민족애에 기초한 동일화의 욕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한과 북한이 '순환론적 소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당위적이고 실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면서 연구를 마쳤다.

본 연구는 인문학적 소통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남한과 북한의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지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어떤 논의들의 전개되어야 하는지를 밝혔다는 것에 그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자기 안의 타자와의 대화 - 해석학적 순환론'을 통일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볼 수도 있다. 서론에서 밝혔듯 소통은 통합의 필요조건이지 진정한 통합에 이르는 충분조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소통 없이는 남북한의 통합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여러 방면에서 모델로 삼을만한 독일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교류·협력을 통해서 통일에 다다를 수 있었다.

통일 방안을 국가·민족적 차원의 관점에 입각하여 탐색하는 것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점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통일은 결국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영역을 탐구하는 인문학에서 어느 정도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인문학적 관점에서 통일을 바라보고 통일 문제의 해결책을 탐색하는 과정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의 첫 번째 전제조건으로 소통을 설정하고, 본 연구에 더해 인문학적 관점의 여러 소통 방법을 찾는 것은 중요하다. 더 나아가 인문학적 소통을 남북한 상황에 적용하는 것과 그 구체적인 방법들이 논의 된다면 분명한 실효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 논문 투고일: 2017.5.12.    ※ 논문 수정일: 2017.7.16.    ※ 게재 확정일 : 2017.7.20.

## 참고문헌

- 김성민 외(2015). 통일인문학. 알렙.
- 김성민, 박영균(2009). 인문학적 통일담론과 통일인문학: 통일 패러다임에 관한 시론적 모색. 철학연구, 92, 143-172.
- 박서현(2009).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순환에 대하여. 철학, 101, 57-84.
- 배성인(2013). 한반도 통일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관한 시론적 모색 -세 가지 인문학적 접근-. 인문사회 21, 7(4), 917-936.
- 베른하르트 타우렉(1997). 레비나스. 인간사랑.
- 송두율(2002). 경계인의 사색. 한겨레신문사.
- 송두율(1995).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 한겨레신문사. pp 242.
- 황병덕 외(2011).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 늘봄플러스.

**<Abstract>**

---

## A Study on Humanities 'Communication' as a Condition of Unification

---

Lee Seung Kyu(Suwon Ingyue Elementary School)

Unification is a task that must be solved in order to pursue practical interests and right for the people of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unless sufficient communic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s premised, it is difficult to achieve unification in a peaceful way. Even if it is unified by various external factors, it will be another cause of conflict, if the people do not have communication attitude. Therefore, communication should be preconditioned in order to achieve peaceful unification and to prepare for the problems that will arise after unification.

However, as can be seen from the experience, if we stick to conventional method, it is difficult to expect substantial progress in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erefore, human-to-human communication of human beings is proposed as a solution.

Therefore,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meaning and method of human communication, and examines how it can be applied to the context of North and South Korea. This study will help us to find new directions for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we hope that it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Key Words** : communication, difference, desire for identification, other, affection for nationality